

쉽고 빠른 시제품 개발, 크리에이터들은 가능합니다  
**오늘 주문하면 모레 도착!**  
 온라인 3D 프린팅 서비스 크리에이터블  
**10% 할인 쿠폰 번호 : BWKZZ2W3**  
[www.creatable.com](http://www.creatable.com) 02-766-6322

# '구슬땀' 흘렸다는 중기부... 현장 체감은 '싸늘'



박정은 jeopardy@etnews.com  
경제금융증권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1년' 성과·과제 64개 정책·904개 세부 과제 추진 분야별 경쟁투어 등 소통 공 들여 최저임금·근로시간 등 핵심 현안 中企·소상공인 목소리 반영 안돼**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26일 청에서 부모 승격한 지 1주년을 맞는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상공인 중심 경제 전환을 기치로 내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 유일 신생 부처다.

일주일에 1개 이상 정책을 발표하고 추진했다. 분야별 경쟁투어 등 소통에도 공을 들였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 온도는 낮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현안에서 업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했다는 비판도 듣는다. 위상은 올랐지만 현장 기대감은 만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지적됐다.

중기부는 23일 출범 1년 성과와 관계 부처 협업의 64개 정책 904개 세부 과제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일자리·소득주도 성장 분야 15개, 혁신 성장 40개, 공정경제 8개 등 역대 정부와는 다른 방식으로 중소·벤처·소상공인을 강력하게 뒷받침

했다는 설명이다.

창업·벤처 분야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민간 주도 방식으로 정책을 개편했다. 벤처 진입 제한과 투자 제한 규제를 제거, 민간자금의 벤처 시장 유입을 촉진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는 기술 탈취 시도, 납품 단가 감액 등 부당한 관행 자체에 부담을 느끼는 환경 조성에 공을 들이고 있다. 부처원에서는 관계 부처와 스크럼 방식 협업으로 정책 마련을 주도했다.

홍준학 중기부장관 역시 국무위원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법안을 제출·처리하고, 각 부처 국정 안건에 중소기업 대변인으로 의견을 행사했다고 자평했다.

홍 장관은 "중기부가 소상공인이 겪는 어려움을 적극 개선해서 최저임금 관련 산업 범위 조정 등 여러 문제가 해결됐다"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제기하는 문제를 내각에 지속 전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중기부에 내리는 평가는 박하다. 정책을 다각도로 쏟아냈지만 체감 온도는 낮기 때문이다.

성과로 내세운 중소기업 정책 가운데 중기부가 주관하거나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도 28개 정책 267개 세부안뿐이다.

중기부가 주력하는 기술 탈취와 하도급 관련 정책 역시 공정거래위원회 의존도가 높다.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 인하 권한은 금융 당국에 있다. 홍 장관이 주관해서 진행하는 규제 혁신 끝장캠프는 각 부처 실무 담당자를 불러 의견을 주고받는 정도에 그쳤다. 국무회의에 관련 안건을 제출하긴 했지만

뚜렷한 해결 성과는 아직 내지 못했다.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이슈에서는 주무부처임에도 대체로 중소기업·소상공인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반응이다.

소상공인 단체 관계자는 "소통하겠다고 찾아와서는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같은 우리 의견은

들은 체 만 채하고 정부 입장만 반복해서 피력하고 간다"면서 "청에서 부로 규모가 커졌음에도 우리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이날 중기부 1주년 성과 및 과제 발표 행사에서도 최저임금 이슈가 화두에 올랐다.

홍 장관은 "최저임금 차등 적용 관련 소상공인 입장은 내각에 정확히 전달하겠다"면서도 "기존 최저임금 인상분보다 높은 추가 부담은 반드시 정부 지원으로 경감하고, 그럼에도 부담이 있다면 이는 구조 문제"라는 정부 입장을 되풀이했다.



**홍채·얼굴까지 만족해야 '보안 완성'** 홍채와 얼굴을 동시에 인식하는 시스템이 나왔다. 한국테러방지시스템은 23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사무실에서 홍채와 얼굴을 인식하는 생체인식시스템 '인사이트원'과 'M6'을 출시했다. ▶관련기사 10면

Since 1895

MT8821C

## Test Tomorrow Today

Up to 6CC LTE-A 스마트폰, 태블릿 및 IoT 모듈 등과 같은 모바일 개발을 위한 All In One 솔루션

RF  
TRX Measurement / Calibration

OTA

Power  
Consumption Testing

LTE-U LAA

6GHz RF

160 Mhz BW

Cat.M NB-IoT

제품에 대한 문의 또는 데모신청은 T.031-696-7750으로 연락주세요

Inter-RAT Measurement

End-to-End Communication Testing

VoLTE



Anritsu  
envision : ensure

MT8821C

안리쓰코퍼레이션(주) | 문의 : ackr.marcom@anritsu.com | www.anritsu.com

## 클라우드 사용 기업 '보안 먹구름'

상반기 기업·기관 51% 사이버 공격 당해 스토리지 설정 오류...데이터 유출 빈번 악성코드 감염 '암호화폐 채굴' 악용도

올해 상반기에 클라우드 사용 기업 절반이 사이버 공격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데이터와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동, 해커도 서버와 PC에 국한시킨 공격을 클라우드 인프라로 확대했다.

체크포인트는 2018년 상반기 사이버 공격 보고서를 통해 전 세계 기업·기관 51%가 클라우드 인프라 대상으로 사이버 공격을 당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커는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를 악용, 다양한 공격과 기술을 시도했다. 페덱스, 아비바, 혼다, 테슬라 등이 클라우드 인프라 공격을 받았다.

기업은 클라우드 인프라로 이동했지만 아직 최적화된 보안 체계를 갖추지 못했다. 클라우드 스토리지 설정 오류로 중요한 외부 데이터를 유출하는 사고가 빈번한 실정이다.

해커는 컴퓨팅 파워가 큰 클라우드 인프라 취약점을 찾아내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공격자는 주요 자료를 빼돌리는 것은 물론 암호화폐를 채굴했다. 클라우드 인프라는 암호화폐 채굴에 PC나 서버보다 훨씬 효율 높은 환경이다. 상반기에 클라우드 구성 핵심 요소인 '도커'와 '쿠버네티스'를 표적한 채굴 악성코드가 발견됐다.

전자기 기업 테슬라와 영국 다국적 보험사 아비바, 켈알토 등은 상반기 클라우드 인프라가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에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세 회사는 오픈소스 쿠버네티스 관리자 콘솔

을 사용했다. 문제는 인터넷으로 접속할 수 있는 서비스임에도 비밀번호를 설정하지 않았다. 클라우드 설정 오류로 해커에게 인프라 문을 그대로 열어 준 셈이었다.

해커가 기업 쿠버네티스 관리자 콘솔에 접근하면 아마존웹서비스(AWS)나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 환경에 접속하는 권한도 얻는다. 해커는 클라우드 인프라에 접근해 암호화폐 채굴 악성코드를 설치하고 컴퓨팅 파워를 빼돌렸다.

사이버 공격자는 테슬라가 사용하고 있는 AWS 환경에서 접속 권한을 발견했다. 테슬라 자동차의 민감한 텔레메트리 데이터가 저장된 아마존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S3) 버킷에 접속할 수 있었다. 테슬라는 발견 즉시 조치하고 고객 프라이버시나 차량 안전, 보안이 훼손된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

클라우드 서비스 설정 오류로 인한 정보 유출 사고도 줄을 이었다. AWS S3를 비롯해 애저, 구글 등에 적용된 스토리지 설정 오류 때문이다. 고객은 AWS S3에서 사용하는 공간을 '버킷'으로 지정한다. 문제는 버킷을 구성할 때 사용자 오류로 내부 데이터가 유출된다. 버킷 설정을 읽기(Read) 상태로 두면 자동으로 데이터가 외부로 노출된다. 일부 사용자가 버킷을 덮어쓰는(overwrite) 설정으로 방치해 데이터가 삭제되거나 악성코드에 감염되는 더 큰 피해를 본다.

공격자가 수정 가능한 버킷을 찾아내면 악성코드를 업로드, 파일을 훼손시킨다. 해커는 잘못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설정을 검색하는 도구 'AWS S3 버킷 덤프'도 사용한다.

지난해 1억9000만명의 미국 유권자 개인 정보를 인터넷에 노출한 사고 역시 클라우드 스토리지 설정 오류로 발생했다.

김인순 보안 전문기자 insoon@etnews.com

알립니다

5회 드림업 소프트웨어(SW) 교육 모집

## 우리 아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SW 인재'

올해부터 중학교를 시작으로 소프트웨어(SW) 교육이 의무화됐습니다. 그럼에도 상당수 학부모와 학생들은 SW를 어떻게 공부해야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전자신문사는 2016년과 2017년에 이어 올해 다섯 번째로 무료 SW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초·중·고 학생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SW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학생과 학부모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5회는 4회와 마찬가지로 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교육 지원 동기와 경험을 평가, 선발합니다.)

- 일시: 2018년 8월 11일, 18일, 25일(매주 토요일, 오전·오후 하루 3시간, 총 9시간) \*첫날(11일)은 오전·오후반 구분 없이 오후 2~5시 공통 수업으로 진행
- 대상: SW에 관심 있는 초등학교 4~6학년
- 선발 인원: 반별 20명, 4개반(총 80명)  
\*오전 2개반(기초 1개반, 심화 1개반, 오전 10시~오후 1시), 오후 2개반(기초 1개반, 심화 1개반, 오후 2~5시) 가운데 택일 가능
- 교육 장소: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79 롯데정보통신

- 참가비: 무료
- 참가 신청: 온라인 접수(ciboz.co.kr)
- 접수 기간: 2018년 7월 24일(화) 오전 9시~8월 6일(월) 오후 6시(선착순 접수가 아니라 교육 지원 동기와 심화반의 경우 경험을 선발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 등록 결과 발표: 2018년 8월 8일(수) (개별 연락)
- 주최: 전자신문사
- 후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롯데정보통신
- 교육 문의: 전자신문사 드림업 SW교육 사무국 (02) 2168-9366, software@etnews.com